

일주일간

박소영

요즈음 일주일정도 석고 직조 작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거칠게 형태를 만들고 직접 석고를 바르며 완성된 물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피부처럼 고운 덩어리가 되려면 사포 60 에서 180 으로 400 에서 1000 까지 문지르며 단순노동이 반복됩니다.

마지막에 손잡이를 달기위해 석고 덩어리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덩어리에서 그 구멍은 숨구멍이 되며 그 구멍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를 만들 것인가, 몇 개의 구멍을 뚫어야하는가가 늘 고민입니다.

왜 짝수 보다는 홀수 쪽으로 기울어 지나요.

이것 또한 관념적일 텐데 말입니다.

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노동은 형태를 만들고 형태는 미술을 만듭니다.

그것은 덩어리, 또는 형태, 또는 짐 정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아름다움은 치유입니다.

저에게 아름다움은 서러움입니다.

저에게 아름다움은 길들여지지 않음입니다

저에게 아름다움은 서글픔입니다.

저에게 아름다움은 번뇌입니다

저에게 아름다움은 용기입니다

저에게 아름다움은 숨구멍입니다

저에게 아름다움은 덩어리입니다